

보성차 브랜드 가치 확산·세계화 나선다

보성차 제품 다양화와 차 문화 소비 촉진,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 3일 보성차의 브랜드 가치 확산과 차 문화 소비 촉진을 위해 '제4회 보성 티 마스터컵(BMTC·Boseong Tea Master Cup)'을 개최한다. 보성 티 마스터컵은 보성차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차 음료를 개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차 음료 개발 경연대회로, 전국 차 전문가와 바리스타, 음료 전공 학생, 카페 운영자 등이 참여해 차 음료 경향을 제시하는 행사다.

군, 5월 3일 '제4회 보성 티 마스터컵' 개최 바리스타·학생 등 참여 K-Tea 플랫폼 성장

대회 참가 접수는 4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예선은 서울(4월 17~18일)과 부산(4월 19일)에서 개최된다. 이후 준결선은 5월 2일 보성, 최종 본선은 5월 3일 제4회 보성다향대축제 주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심사의 공정성과 참가자 간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차(Competition Tea)' 제도를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보성군의 다원에서 생산된 차를 활용해 카페용 차 음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번 대회 지정차는 예성오가니의 녹차(잎·티백), 원당제다원의 말차(분말), 백연꽃발효차의 홍차(잎), 선다원의 호지차(잎), 청우다원의 호지차(분말), 영천다원의 황차(잎) 등 총 6개 다원 7개 품이다. 참가자는 이 중 1개 이상의 지정차를 필수 활용에 음료를 개발해야 한다.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 차 전문가와 카페 운영자, 대학생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울·부산 예선을 통해 보성다향대축제를 사전에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전 대회의 출품 음료가 음료 프랜차이즈와 협업해 보성 대표(시그처) 음료로 출시되는 등 실제 산업 연계 성과로 이어진 바 있어, 차 음료 시장에서 보성차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 티 마스터컵 2026 경쟁력 강화 대회 포스터

대회 참가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보성 티 마스터컵' 공식 누리집(www.btmc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티마스터컵은 차 전문가들의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여 국내 차 음료 시장을 이끄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말차 등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보성차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료 개발을 통해 한국 차와 K-Tea 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영원한 사랑, 구례에 찾아오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산동면 산수유마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례산수유꽃축제, 봄꽃 향연 마무리

참여형 축제 도약 평가...28일부터 300리 벚꽃축제 개최도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가 '영원한 사랑, 구례에 찾아오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산동면 산수유마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축제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화이트데이와 연계한 감성 테마 공간 '빛과 사랑의 터널'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으며, 산수유 열매까지 대회, 산수유 골든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 공간을 재편해 공연, 체험, 음식, 판매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축제의 집중도를 높였다. 아울러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행사장 진입로에 배치해 자연스러운 소비 동선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주민 참여 두드러졌다. 산수유꽃 마을 한마당 운영을 통해 마을 단위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로 운영됐다. 축제는 마무리됐지만 산수유꽃의 절정 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리산 자락 상우마을 일대는 개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4월 초까지 만개한 산수유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낸 이번 축제를 통해 구례 산수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례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대한민국 대표 봄꽃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산수유꽃축제, 300리 벚꽃축제, 화엄매 사진 콘테스트를 연계해 봄꽃 축제의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구례300리 벚꽃축제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시천체육공원 및 문척면 일원에서 '구례 벚꽃로드 129km, 벚꽃길 따라 즐거운 봄소풍'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화엄매 화엄매 사진 콘테스트는 4월 5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여수세계섬박람회 주요 거점 홍보 본격화 시, 정부세종청사·종로·부산 등 확산... 국민 관심 유도

여수시는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5개소 섬박람회초대 현수막을 게시해 중앙부처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으며, 4월에는 서울 종로구 주요 거점에 현수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국회와 청와대 인근 등 국가 주요 기관 밀집 지역을 비롯해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홍보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민적 관심을 끌어들이고 섬박람회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부산 지역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섬박람회 조감도가 포함된 포스터를 부착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국 주요 거점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포지구와 남면 금오도, 개도 등 섬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송민지 기자 swg331@gwangnam.co.kr

순천, 문화콘텐츠 기업 정착 지원

인건비·주거비 등...핵심 인력 유치 기대

순천시가 문화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핵심 인력 유치를 위해 '문화콘텐츠 기업 종사자 정주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 대상 모집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순천시가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이전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에서 정착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화콘텐츠 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핵심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고용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한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1년 이상 경력자를 순천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채용한 경우 기업당 최대 2명에 대해 1인당 월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청 기업에 대해 적격 여부 검토,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종사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문화콘텐츠 기업 종사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고용인력 3인 이상의 문화콘텐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 25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4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 접수(순천시 콘텐츠정책과)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순천시 콘텐츠정책과(061-749-6553)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광양, 아동친화도시 첫걸음...아동참여위원회 발대

광양시는 최근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광양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책에 의견을 내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아동참여위원과 보호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아동참여위원 위촉장 수여 및 단체 사진 촬영, 아동권리 교육 및 위원회 활동 안내, 모듬별 참여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위원들은 모듬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향후 활동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관련 의견 제시, 아동 권리 옹호 활동, 아동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참여 기반을 꾸준히 넓혀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활동이 아동들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참여의 의미를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곡성군은 최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 임면농협, 곡성축협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곡성, 농어촌기본소득 상생협력 첫발

지역농협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곡성군은 최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곡성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 임면농협, 곡성축협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 하나로마트 이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이에 따른 농협의 지역 상생활동과 사회환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통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지재판매장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사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농협별로 반찬 나눔, 이동마트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역 상생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곡성군이 추진 중인 희망복지기동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해 마을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협약을 계기로 농협과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과 홍보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곡성=김유빈 기자

곡성=김유빈 기자

“고흥 유자나무와 함께 추억 만들어요”

군, 5월까지 분양 이벤트 참여자 모집

고흥군은 국내 최대 유자 주산지로서 지역 특산물인 유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문화 인지도 높이기 위해 고흥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는 신청자가 1년간 자신의 유자나무를 선정해 이름표를 부착하고, 수확시기에 직접 수확하는 도시·농촌 공감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고흥군 유자축제 행사가 위치한 풍양면 양리마을에서 진행된다. 유자나무 분양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된 QR코드를 통해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분양 가격은 한 주당 6만원으로, 유자 생과와 체험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2026년 고흥군 고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정돼 20만원 이상 기부 시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상생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를 통해 도시민들이 고흥 유자의 품질과 매력을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국내 최대 유자 주산지로서 지역 특산물인 유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문화 인지도 높이기 위해 고흥 유자나무 분양 이벤트 참여자를 모집한다.